

# 2004년 국제유가 전망

## - Dubai유 기준 -

에너지경제연구원

### I. 2003년 원유시장 움직임

○ 대 이라크 전쟁 영향으로 상반기 급등락 이어져  
 베네수엘라 노조의 전면파업 장기화 여파와 연  
 말 이후 고조되어왔던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의  
 우려와 개전을 전후한 원유시장 혼란의 영향으  
 로 3월 중순까지 유가 급등과 고유가 상황이 지  
 속되었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우려가 개선으로  
 치달은 3월 중순 이후 유가는 오히려 단기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25% 이상 폭락하였고, 사실상  
 의 전투행위가 끝난 4월 중순까지 약보합세로  
 유지되었다.

○ 유전복구 지연, 낮은 석유재고로 비수기에도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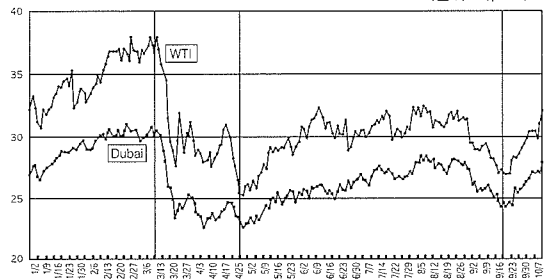
5월 1일 부시 대통령은 공식으로 종전을 선언하  
 였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종전 이후 이라크 유  
 전 복구가 치안 불안과 사보타지 등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 등  
 소비국의 석유재고가 최저 상황이라는 점이 부각  
 되면서 5월초 이후 유가는 강한 상승세로 돌아섰  
 고, 이후 8월말까지 \$26/b~\$28/b(Dubai 기준)  
 의 고유가 상황으로 지속되었다.

(그림) 2003년 주요 원유의 현물가격 추이

(단위 : \$/bbl)



7월을 고비로 이라크의 원유생산이 예상 밖의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 연말까지 200만 b/d 수  
 준의 생산능력 회복이 예상되는 등 긍정적 전망  
 으로 반전됨에 따라 유가는 9월 초순부터 하순  
 까지 가파른 하락세로 이어졌다.

9월 24일 개최된 OPEC 총회에서 90만 b/d를

감산키로 합의한 이후 경기회복 요인과 계절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다시 강한 상승세로 전환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II. 2004년 원유시장 주요 변수 분석

### 1) 수요부문

#### ○ 세계경제 회복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2004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2003년 대비 0.9%p 높은 4.1%로 전망하였다. 세계경제가 2003년의 완만한 회복세에서 2004년에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본격적 성장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선진국 경제성장률 2.9%, 미국은 2002년 2.6%에서 3.9%로 본격적 경기회복이 예상되고 있으며, EU 1.9% 성장 전망, 일본은 1.4%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아시아신홍공업국 경제성장률은 전망은 4.2%로 2003년 SARS 등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개도국과 구소련의 체제전환국들은 5% 내외의 경제성장을 전망하였다.

〈표-1〉 IMF 실질 GDP 증가율 전망

(단위 : %)

	2002년(실적)	2003년(추정)	2004년(전망)
전세계	3.0	3.2	4.1
선진국	1.8	1.8	2.9
- 미국	2.4	2.6	3.9
- 일본	0.2	2.0	1.4
- EU	0.9	0.5	1.9
아시아NICs	4.8	2.3	4.2
개도국	4.6	5.0	5.6
체제전환국	4.2	4.9	4.7

주) IMF, Global Economic Outlook, 2003. 9. 18.

세계 경제가 4%대 성장률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를 보이면, 그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OECD 선진국의 경우,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에 대한 부담과 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과 발전, 에너지절약 강화정책 등으로 소비증가율의 둔화 움직임이 다소 완만해 지겠지만 추세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000년 이후 세계 석유소비 증가율을 보면 1991~1999년까지 연평균 1.4%, 1999~2002년에는 0.9%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IEA는 "Oil Market Report" 최근호에서 2004년 세계 석유수요를 79.4백만 b/d로 2003년 대비 106만 b/d 증가, 1.3%의 증가율 전망을 내놓고 있다.

### 2) 공급부문

#### ○ OPEC, 결속력과 목표유가 지속성에 불안감

OPEC은 2004년 원유시장의 예상되는 초과공급 상황에 대하여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라크의 쿼터체제 복귀 문제와 원유시장 점유율 문제를 둘러싸고 회원국간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OPEC은 이라크의 원유 생산능력 회복과 증산, 러시아 등 비OPEC의 공급량 증가 등으로 2004년 원유시장의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규모 감산 등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비수기로 접어들기 이전부터 유가의 급격한 하락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또한 OPEC 회원국인 이라크가 생산능력 회복 이후에도 경제회복 등을 이유로 쿼터체제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으로 이라크의 OPEC 탈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OPEC이 2004년의 목표유가를 \$25/b 수준으로 잡고 있으나 심각한 초과공급 상황이 발생되면 추가감산과 비OPEC 공조가 확보되지 않는

한 목표유가 수준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OPEC의 원유시장 점유율이 약 36%인 현 상황에서 유가관리를 위한 OPEC만의 대규모 추가 감산은 비OPEC 공급 증가로 인해 시장점유율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증산을 요구하는 이란과 알제리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OPEC은 유가밴드(\$22~\$28)를 계속 유지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증산 또는 감산 결정 기준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증산 지연과 감산의 조기집행 등)이다.

또한 OPEC은 실질적으로 \$25/b 이상의 유가 수준을 기대하고 있지만 비OPEC 최대 수출국 러시아가 \$20~\$25의 유가수준을 언급하는 등으로 비OPEC과의 정책 공조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 이라크 석유산업, 낙관적 전망 속에 불확실성도 상존

이라크가 유전과 생산 및 수송시설 등 석유산업의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라크 정부 발표대로 원유 증산 및 수출의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며 2004년 원유가격 하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여전히 전투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라크 정부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정치적 안정의 달성 여부가 석유산업의 완전 복구와 추가 개발에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라크 정부는 2004년 3월말까지 산유량 280만 b/d 회복, 연말까지 300만 b/d 이상 생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수출루트의 다양화도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저항세력의 미군에 대한 공격이 더욱 늘어나고 석유시설에 대한 사보타주가 자주 발생된

다면, 유전복구와 증산 계획은 차질을 불러올 수도 있다.

〈표-2〉 이라크 2003년 월별 산유량 추이

(단위: 백만 b/d)						
월별	1월	3월	5월	7월	8월	9월
생산량	2.49	1.46	0.28	0.66	1.07	1.45

자료: 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June 2003

○ 비OPEC, OPEC과의 감산공조에 소극적

원유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러시아와 노르웨이, 멕시코 등 3대 비OPEC 산유국들이 \$25/b 이상 고유가 유지를 위한 OPEC과의 정책 공조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20/b 이하 유가 수준에서 OPEC과의 감산에 대한 정책공조에는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2~3년 동안 꾸준한 원유증산을 통하여 국내경제 성장기반을 구축한 상황으로, 러시아 수상과 에너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기대하는 유가 수준을 \$20~\$25라고 밝혀 \$20/b 이상에서 OPEC과의 감산 공조 가능성이 낮음을 내비친 바 있다.

또한 노르웨이와 멕시코도 시장안정을 위한 OPEC과의 상호 정책공조는 긍정적이라고 밝혔지만 고유가 유지보다는 \$20/b 내외로의 유가하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기타 요인들

중동평화 협상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문제,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미국의 압력, 중동 최대 산유국 사우디에서의 예기치 못한 테러 및 폭동의 가능성 등 중동지역의 잠재적 불안요인들이 석유 시장에서 돌발적인 악재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가 2004년 2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 시기를 전후하여 2002년 말과 같은 극렬한 정치적 파업 재연의 우려도 남아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는 파

업의 가능성 또는 잠재적 요인인 종족분쟁으로 인한 원유생산 중단 가능성 등이 도사리고 있다.

주요 산유국에서의 이 같은 요인에 의한 정정 불안 사태의 발생이 공급 차질로 이어질 경우, 시장에 단기적 악재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Ⅲ. 2004년 수급 전망

〈표-3〉 2004년 세계 석유수급 전망(기준안)

(단위: 백만 b/d)

	2003년	2004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평균	
총수요 <sup>1)</sup>	78.4	79.8	77.4	78.9	81.6	79.4	
총 공급	비OPEC <sup>2)</sup>	49.1	50.3	50.2	50.3	51.1	50.5
	OPEC-10 <sup>3)</sup>	28.4	27.9	26.5	26.5	27.5	27.1
	이라크 <sup>3)</sup>	1.3	2.1	2.3	2.6	2.9	2.5
	합계	78.8	80.3	79.0	79.4	81.5	80.1
재고증감	+0.4	+0.5	+1.6	0.5	-0.1	+0.7	

주: <sup>1)</sup>IEA 전망, <sup>2)</sup>비수기 감산 가정, <sup>3)</sup>증산계획 반영

2004년 세계경제의 본격 회복국면을 반영한 경우, 세계 석유수요는 대체로 전년 대비 약 100만 b/d 수준의 증가를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

IEA는 2004년 세계 석유수요를 79.4백만 b/d로 전년 대비 106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국(EIA/DOE)은 79.7백만 b/d로 전년 대비 110만 b/d 증가를 전망하였으며,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에너지연구센터(CGES)는 OPEC의 시장통제 가능 상황에서 79.3백만 b/d를 전망하여 전년 대비 70만 b/d의 증가를 전망하였다.

한편 비OPEC 석유공급은 전망 기관마다 전년 대비 1.3백만~1.4백만 b/d 수준의 공급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데 주로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과 아프리카지역의 공급 증가분이 전체 비OPEC 공

급 증가 물량의 약 70%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IEA는 2004년 비OPEC 공급물량을 50.5백만 b/d로 전년대비 1.4백만 b/d 증가를 전망하였고, 미국 에너지정보국(EIA/DOE)은 49.9백만 b/d로 전년대비 130만 b/d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비수기 기간 동안 이라크를 제외한 OPEC 10개국이 추가 감산에 합의하고, 이라크 증산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경우를 가정한 기준전망 시나리오에서, 2004년 세계 석유수급은 연평균 약 70만 b/d 초과공급 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 Ⅳ. 2004년 유가(두바이 원유) 전망

앞에서 언급된 제반 요인들을 감안하여 OPEC의 감산 가능성과 이라크 원유증산 가능성 2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2004년 원유시장을 전망하였다.

기준 전망(시나리오 I), 즉 OPEC-10개국의 2/4분기 이전 추가감산에 합의하고 이라크 산유량 회복이 기대대로 시행되는 시나리오에서 두바이 원유 연평균 가격 \$24.5/b로 전망되었다.

한편 시나리오 구성에서 세계경제 회복과 비OPEC의 증산 요인은 이미 어느 정도 추세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구성 요인에서 배제하였다.

한편 OPEC이 2분기 추가감산을 시행하되 이라크 원유 증산 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가정한 고유가 시나리오(시나리오 II)에서 두바이 원유 연평균 가격은 \$26.0/b로 전망되었으며, 유가 유지를 위한 OPEC의 감산계획이 차질을 가져오고, 이라크 원유 증산 계획이 순조로운 저유가 시나리오(시나리오 III)에서 두바이 원유 연평균 가격은 \$22.0/b로 전망되었다. ☹